



# < 조사개요 >

## 1. 조사명

- 2025년 2/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

## 2. 조사목적

-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
-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

## 3. 조사대상

-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체(※유효 응답 업체 252개체)

## 4. 조사방법

- 전화 및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

## 5. 조사내용

- 전반적인 체감 경기
- 매출, 영업이익 등 부문별 전망
- 주요 업종별 전망

## 6. 주의사항

-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.0%가 되지 않을 수 있음

## 7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의 의미

$$BSI = \frac{\text{호전(증가)표시업체수} - \text{악화(감소)표시업체수}}{\text{총 유효응답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※ BSI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

# 1 2025년 2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

## ■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'68', 트럼프發 관세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부진 장기화의 영향으로 경기악화 전망

### ○ 2025년 2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'68' (전분기 대비 2p 증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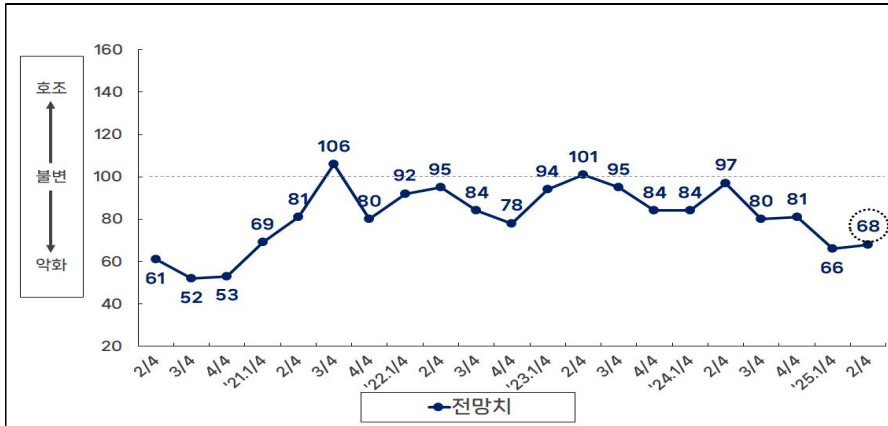
- 지역 경제는 내수부진 장기화와 국내 정세 불안정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發 관세정책의 충격까지 겹치면서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치(100)를 크게 하회
- 또한 지난 2월 기준금리 인하(3.0%→2.75%)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채 부담 지속과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침체로 전·후방산업의 업황 부진 전망
- 특히, 철강·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% 관세 부과 조치가 3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련업종의 경영환경에 부정적 영향 전망
- 형태별 BSI는 1)수출기업 '88', 2)내수기업 '63' 으로 나타남
-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완화되었으나, 여전히 높은 환율로 인한 원자재 구입 부담은 경기부진을 심화시킴

### ○ 2025년 1/4분기 제조업 경기실적지수 '66' (전분기 대비 4p 감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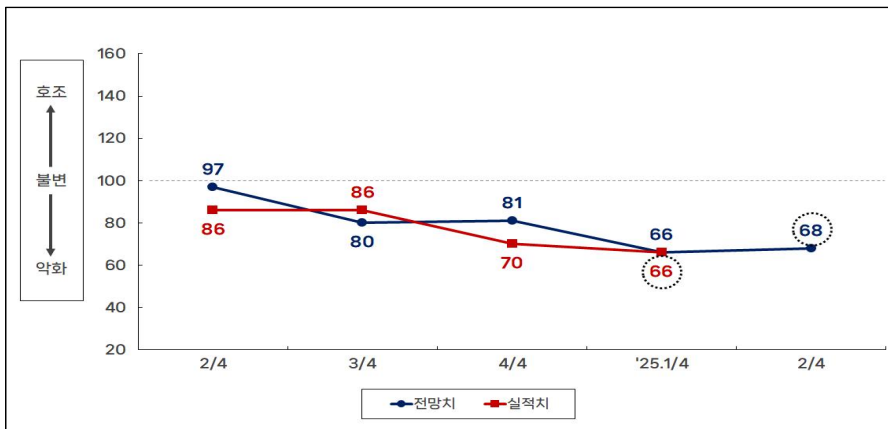
-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 장기화와 전·후방산업 업황 부진, 고환율 및 고물가로 경기실적지수 하락

1)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%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 
2)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%미만을 차지하는 기업

<최근 5년간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추이>



<최근 1년 분기별 BSI 실적 및 전망 추이>



○ 2025년 2/4분기 제조업 경기악화 전망

- 지역 제조업은 2025년 1/4분기 대비 경기악화를 전망하는 업체가 42.9%(108개사)
- 전분기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는 46.0%(116개사), 경기 호전을 전망한 업체는 11.1%(28개사)에 그침

< 2025년 1/4분기 경기전망 응답 분포 >

(단위: 개사, %)

구분	호전	불변	악화	계
응답업체 수	28	116	108	252
구성비	11.1	46.0	42.9	100.0

## 2 경영 부문별 전망

### ■ 지역 제조업은 고환율 및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경영환경 악화 전망

#### ○ 매출(70), 영업이익(67)

- 지역 기업은 고환율 및 내수부진,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매출 및 영업이익 부진 전망
- 또한, 원자재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發 관세정책이 원자재 가격을 더 상승시킬 위험이 있어 지역 제조업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

#### ○ 설비투자(71), 자금사정(66)

- 국내 정세 불안정과 함께 대외 정책 불확실성 확대, 내수부진, 고환율,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역 제조업의 설비 투자 및 자금사정 부진 전망

< 부문별 BSI 변화 >

구분	실적		전망	
	'24.4/4분기	'25.1/4분기	'25.1/4분기	'25.2/4분기
체감경기	70 →	66	66 →	68
매출액	73 →	67	75 →	70
영업이익	73 →	61	73 →	67
설비투자	83 →	76	79 →	71
자금사정	75 →	67	75 →	66

### 3 주요 업종별 전망

#### ■ 대부분의 업종에서 내수부진 장기화와 트럼프 행정부 發 통상 문제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업황 부진 전망

##### ○ 의복·모피(120)

- 글로벌 협력사의 재고 조절 마무리와 계절적 요인으로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의복 부자재 기업을 중심으로 업황 호전 전망

##### ○ 화학·고무(93)

- 高원자재가, 내수부진, 환율변동성 확대, 중국發 저가 제품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업황 부진 전망

##### ○ 1차금속(37)

- 1차금속 제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'37'로 전 업종 중 최저수준
-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가 시행되면서, 건설업 침체 및 高원자재가 부담으로 부진한 업종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

##### ○ 전기·전자(79)

- 미국發 관세 영향으로 전기·전자 산업 위축 우려가 확대되었으며, 전기차 캐즘 및 내수침체 장기화로 산업 전반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관련업 경기부진 전망

##### ○ 조선·기자재(68)

- 지역 조선·기자재업은 원자재 구입 부담과 구인난,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업황 부진 전망
- 특히 지역 조선·기자재업의 경우, 대부분 대형 조선사의 협력사로, 국내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기까지 통상 1~2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 경기 회복이 지연될 전망

< 주요 업종별 BSI 변화 >

구분	실적		전망	
	'24.4/4분기	'25.1/4분기	'25.1/4분기	'25.2/4분기
음·식료품	67 →	81	60 →	75
섬유제품	53 →	69	60 →	56
의복·모피	47 →	73	47 →	120
신발제품	47 →	46	60 →	46
화학·고무	71 →	83	88 →	93
1차금속	48 →	33	44 →	37
조립금속	80 →	89	80 →	63
전기·전자	90 →	79	100 →	79
기계·장비	85 →	63	62 →	63
자동차·부품	69 →	62	52 →	62
조선·기자재	93 →	64	83 →	68

## 4

# 실적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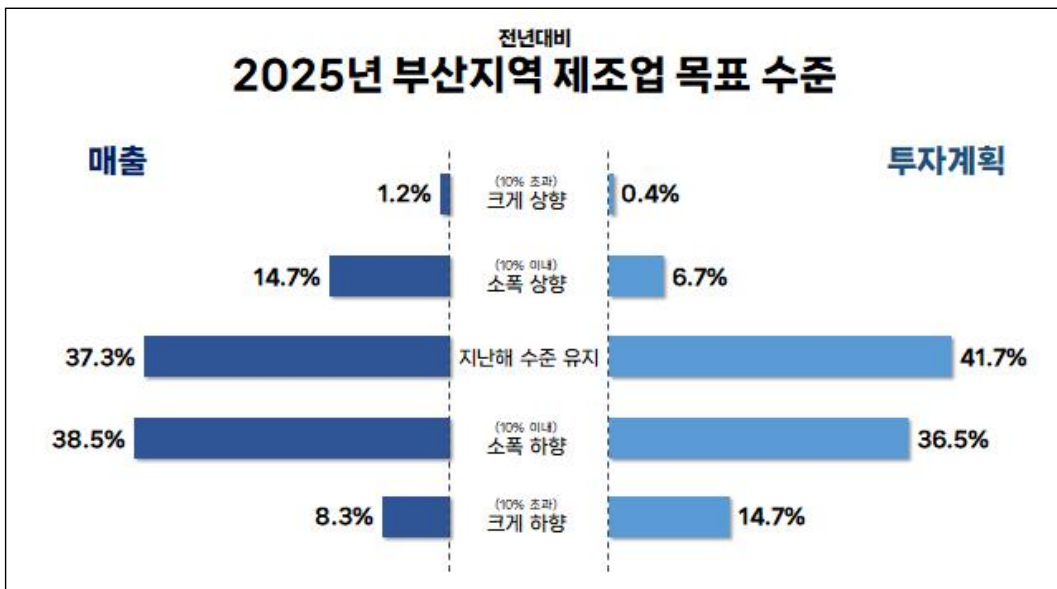
### ○ 지역 제조업 46.8%가 올해 매출 목표 하향 조정

- 전년대비 2025년 목표를 하향 조정한 기업이 46.8%로 전·후방 산업의 부진과 원자재가격 상승, 고환율 장기화, 대외 리스크 지속 등 산업 전반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
- 한편, 전년대비 2025년 매출 목표를 상향 조정한 기업은 15.9%에 그쳤으며,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기업은 37.3% 수준

### ○ 전년대비 투자계획을 축소한 기업이 절반 이상

- 2024년 대비 2025년 투자계획을 축소한 지역제조업이 51.2%,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기업은 41.7%, 투자계획이 확대된 기업은 7.1%에 불과
- 여전히 높은 금리와 소비위축, 인건비 부담 등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기업의 투자여력이 줄어들었으며, 이외에도 국내외 정세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지역기업 투자계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

〈'24년도 대비 '25년도 매출 및 투자계획 목표 수준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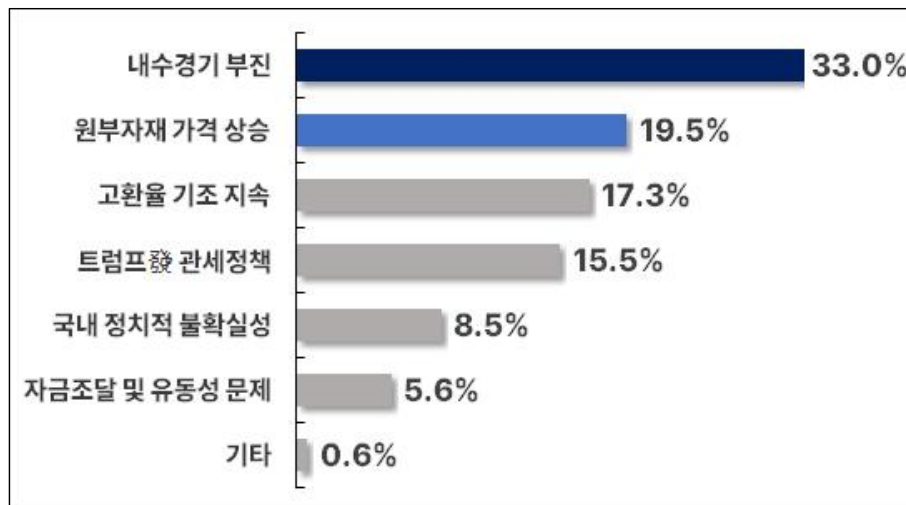




○ 올 상반기 사업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대내외 요인으로 내수부진(33.0%)을 꼽음

- 이어서 원부자재 가격 상승(19.5%), 고환율 기조 지속(17.3%), 트럼프發 관세정책(15.5%),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(8.5%), 자금 조달 및 유동성 문제(5.6%) 등의 순
-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은 지역 제조업 특성으로 인해 고물가, 고환율 등으로 인한 수요부진이 지역기업에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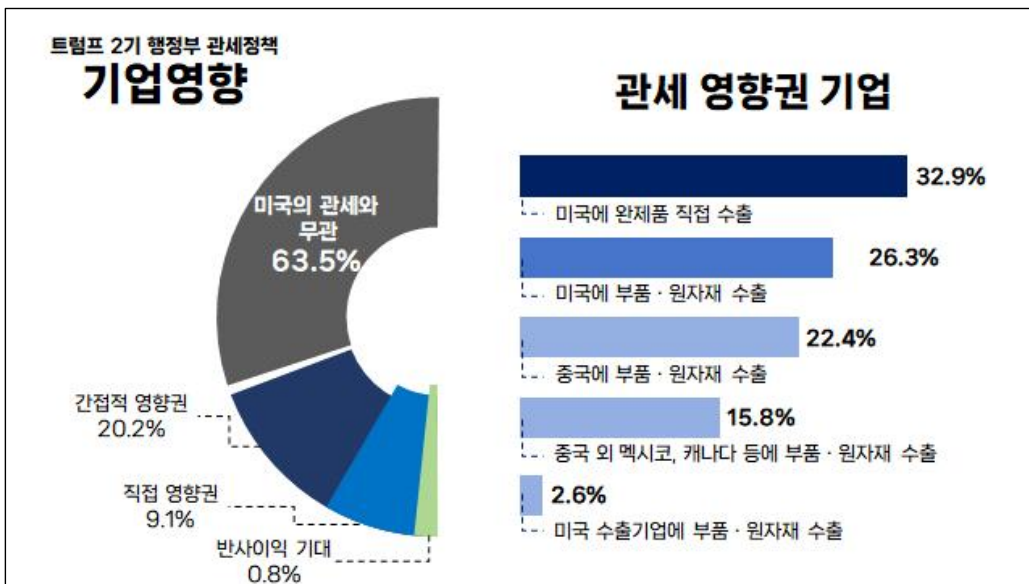
<2025년 상반기 사업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>



## 5 트럼프 新행정부 영향

- 지역기업 30.2%가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의 영향권
  - 세부적으로,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은 9.1%,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20.2%, 반사이익 기대하는 기업 0.8%로 나타났으며 지역기업 69.8%는 美 관세정책과 무관하다 응답
- 트럼프發 관세 정책의 영향권에 있는 기업 중 완제품 수출 기업 최다(32.9%)
  - 이외에도 미국으로 부품·원자재 수출 기업(26.3%), 중국에 부품·원자재 수출 기업(22.4%), 중국 외 멕시코, 캐나다 등에 부품·원자재 수출 기업(15.8%),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·원자재 납품 (2.6%)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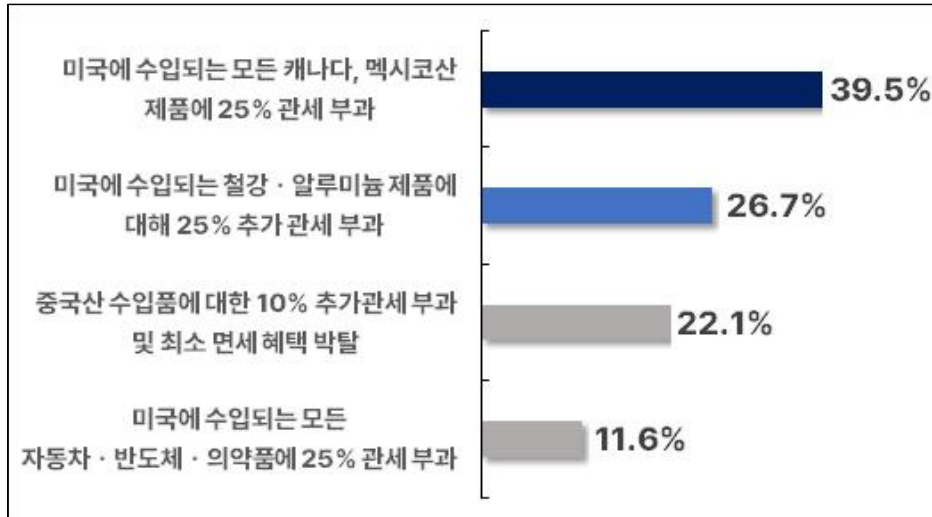
〈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지역 기업 영향권〉



○ 관세정책 중 ‘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캐나다, 멕시코 산 제품에 25% 관세 부과’ 정책(39.5%)이 지역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

- 미국의 對캐나다, 對멕시코 관세정책으로 지역기업의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따른 추가적 비용 부담 확대를 우려한 것으로 보임
- 특히,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대강 정책으로 나서고 있어 지역 수출기업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
- 이외에도 ‘미국에 수입되는 철강·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% 관세’ (26.7%), ‘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% 추가관세 부과 및 최소 면세 혜택 박탈’ (22.1%), ‘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·반도체·의약품에 25% 관세 부과’ (11.6%) 순으로 나타남

<美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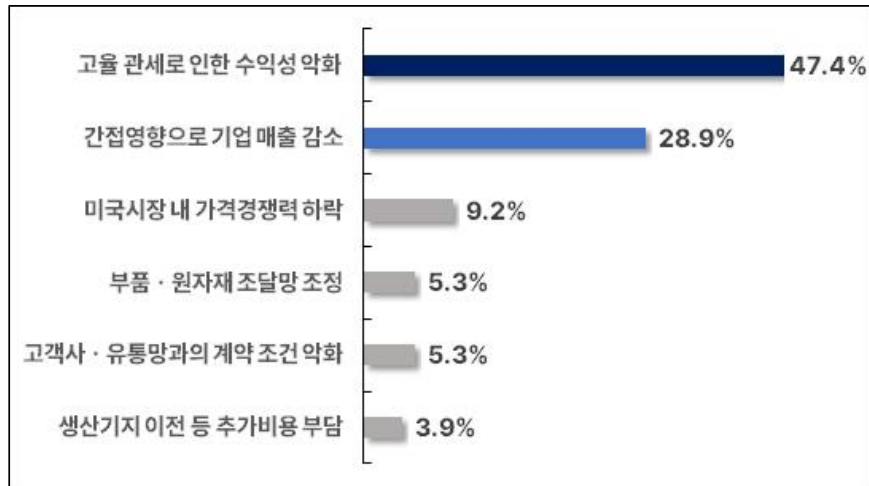


○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정책 구체화시 지역기업 47.4%가 ‘고율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’ 를 우려

- 이는 지역 주력산업 대부분이 자동차·부품 및 철강제품 등 관세 부과 항목과 밀접하여 기업 수익성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

- 이외에도 ‘간접영향으로 기업 매출 감소’ (28.9%), ‘미국시장 내 가격경쟁력 하락’ (9.2%), ‘부품·원자재 조달망 조정’ (5.3%), ‘고객사·유통망과의 계약 조건 악화’ (5.3%), ‘생산기지 이전 등 추가비용 부담’ (3.9%)의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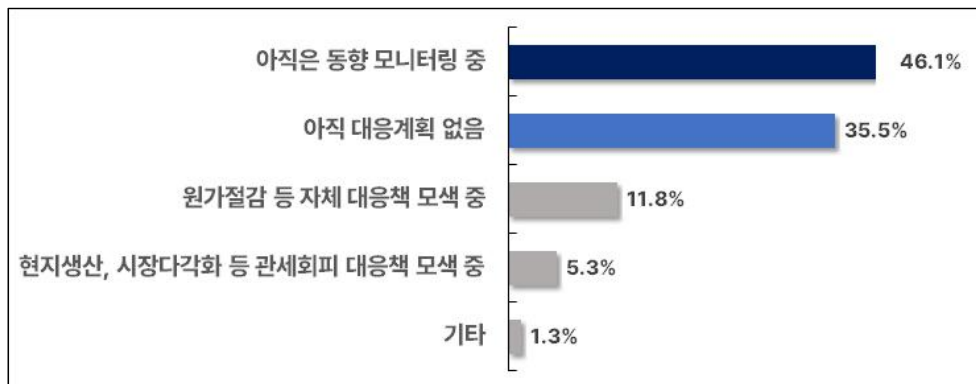
〈美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〉



○ 지역 기업 대다수는 美 관세정책에 대응하지 못한 상황

- 통상정책 특성상 기업차원의 대응이 어려워, 지역 기업 대부분이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(46.1%)하거나 대응계획이 없음(35.5%)으로 응답함
- 한편, 원가절감 등 자체 대응책을 모색(11.8%)하거나 현지생산 혹은 시장다각화 등 관세회피(5.3%) 방안 등의 기업 대응도 일부 확인됨

〈트럼프발 관세정책에 대한 지역기업 대응 현황〉



##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(BSI)

구분	실적		전망			
	'24.4/4분기	'25.1/4분기	'25.1/4분기	'25.2/4분기		
<b>체감경기</b>	<b>70</b>	<b>→</b>	<b>66</b>	<b>66</b>	<b>→</b>	<b>68</b>
매출액	73	→	67	75	→	70
영업이익	73	→	61	73	→	67
설비투자	83	→	76	79	→	71
자금사정	75	→	67	75	→	66
음·식료품	67	→	81	60	→	75
섬유제품	53	→	69	60	→	56
의복·모피	47	→	73	47	→	120
신발제품	47	→	46	60	→	46
화학·고무	71	→	83	88	→	93
1차금속	48	→	33	44	→	37
조립금속	80	→	89	80	→	63
전기·전자	90	→	79	100	→	79
기계·장비	85	→	63	62	→	63
자동차·부품	69	→	62	52	→	62
조선·기자재	93	→	64	83	→	68